

해외출장 보고서

- 북구 Science Park 사례 조사 -

I. 해외출장 개요

- 출장자 : 지역발전연구센터 김정홍 연구위원
 - 동반출장자 : 지역발전연구센터 정만태 선임연구위원
- 출장기간 : 2012년 10월 24일 ~ 11월 2일 (9박 10일)
- 출장지역 : 덴마크(코펜하겐), 스웨덴(예테보리, 스톡홀름)
- 출장목적
 - 현재 계획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시설용지에 경북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, 사이언스파크가 가장 활발히 조성된 북구(덴마크, 스웨덴)를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를 면담하고 기 구축된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함.

○ 출장 일정

| 일자 | 방문 일자 및 기관 | 면담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0월 24일(수) | • 인천 출발 → 파리 도착 | |
| 10월 25일(목) | • 파리 출발 → 덴마크 코펜하겐 도착 • Symbion Science Park Accelerace 방문 및 면담 | • Peter Torstensen(CEO of Symbion Science Park Accelerace) |
| 10월 26일(금) | • Scion DTU a/s 방문 및 면담 • Medicon Valley Alliance 방문 및 면담 | • Torben Oria Nielsen (Head of Business Development, Scion DTU a/s) • Charlotte Ahlgren Moritz(Executive Vice President, Medicon Valley Alliance) • Ann-Sofie Andersson(Project Manager, Medicon Valley Alliance) |
| 10월 27일(토) | • 자료 정리 | |
| 10월 28일(일) | • 코펜하겐 출발 → 스웨덴 예테보리(Göteborg) 도착 | |
| 10월 29일(월) | • Lindholmen Science Park 방문 및 면담 • Sahlgrenska Science Park 투어 | • Bosse Norrhem(Programme Manager, Lindholmen Science Park) |
| 10월 30일(화) | • 예테보리 출발 → 스톡홀름 도착 • Kista Science City 방문 및 면담 •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양혜원 박사 면담 | • Niclas Grahn(Communications Manager, Kista Science City AB) • 양혜원(선임연구원 겸 과학관, 주스웨덴 한국대사관) |
| 10월 31일(수) | • Stockholm Science City Foundation 방문 및 면담 • Karolinska Science Park 투어 | • Paul Beatus(Analysis and Development Manager, Stockholm Science City Foundation) • Andreas Namslauer(Business Development Manager, Stockholm Science City Foundation) |
| 11월 1일(목) ~11월 2일(금) | • 스톡홀름 출발, 프랑크푸르트 경유 → 인천 도착 | |

II. 방문기관별 면담 내용

1. 덴마크 Science Park

(1) 덴마크 Symbion Science Park Accelerace

- Symbion과학단지 20년 이상된 덴마크 최대의 과학단지이며, Accelerace는 단지내 입주기업의 관리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기업임.
- 동 단지에서는 2개의 인큐베이터, 1개의 컨퍼런스센터, 1개의 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- 2개의 인큐베이터는 COBIS(Copenhagen Bio Science Park)와 DTU Symbion Innovation임.

<Symbion 전경>



- Symbion Science Park Accelerace가 지원하는 기업의 분포를 보면

- Symbion Science Park에 생명공학과 ICT기업을 중심으로 110개
- COBIS에 BT를 중심으로 한 30개 기업
- IT University에 ICT 모바일 관련 60개 기업
- Copenhagen대학교 business school에 BT, ICT 관련 50개 기업 등이 있음.
- 창업 유형별 기업분포를 보면 20%는 대학에서 spin-off, 20%는 기업에서 spin-off, 나머지 60%는 일반인의 발명 및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함.
- Symbion에는 20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, 보통 3년간 입주 기간임.
 - 매년 40개 정도의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여 지원되며, 그 중 5~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참여 형태로 투자를 지원함.
 - 동 단지에서 제공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임대용 사무실과 실험실 제공, 컨설팅 서비스, 벤처펀드에 의한 투자지원 등임.
 - 특히 투자지원은 SEED Capital Denmark와 협력하여 인큐베이터 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음.
- Accelerace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.
 - 동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장에 관한 정보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.

- 동 프로그램은 연간 2회 무상으로 제공되나, 지원대상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1년 이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우수한 기업만이 참가할 수 있음.
 -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인 기업은 Symbion Science Park Accelerace가 제공하는 자금(Accelerace Investment Fund) 지원을 받을 수 있음.
- Symbion에 의해 지원된 기업의 3년간 생존률은 95%로, 덴마크 전체 평균 50%를 크게 상회함.
- 뿐만 아니라, Symbion에 의해 지원된 기업의 3년간 자본증가율 40%, 고용증가율 35% 등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음.
- Symbion의 연간 수입은 2,500만 달러 정도이며, 그 중 컨설팅 수입이 10%,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 수입이 10%, 나머지 80%는 임대수입임.

(2) 덴마크 Scion DTU a/s Science Par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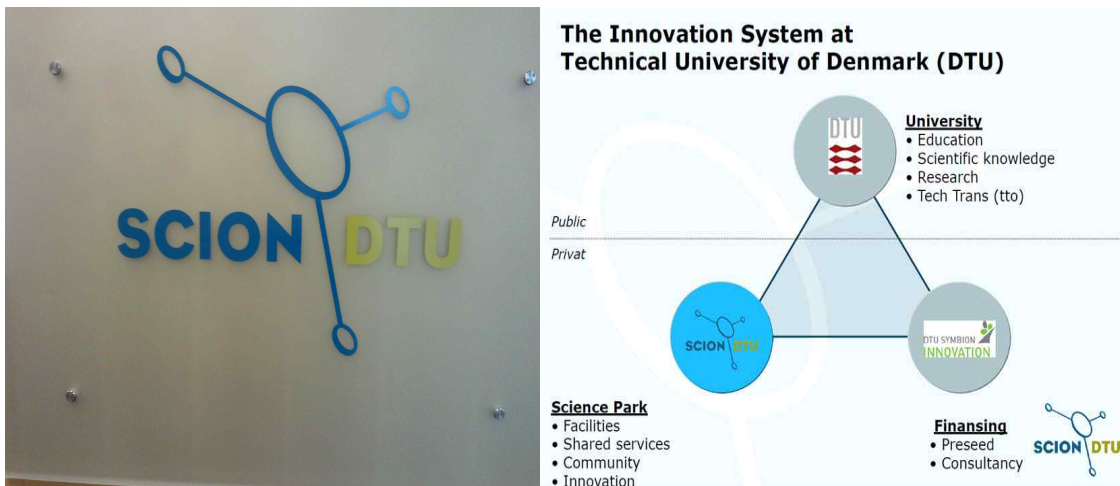
- Scion DTU Science Park는 대학주도의 과학단지로서, 1962년 Scion DTU a/s 가 처음 설립된 이래, COBIS 등 3개로 나뉘어 조성·관리되고 있으며, 2004년 덴마크공대(Danish Technical University)가 100%지분을 갖고 있음.
- 비전 : 지식기반기업에게 연구에서 기업활동까지 성장을 위한 최적 환경 제공
 - 2010년 수입(revenue) : 3,200만 달러
 - 공공보조 없음
 - 시설투자액 : 3억 4천만 달러

- Scion DTU a/s에 근무하는 관리직 : 34명
- 주요 입주 업종 : 생명공학, ICT, Clean Tech, 기타 지식기반제조업, 기업지원서비스업 등과 관련됨.
- 기타 시설 : 컨퍼런스룸, 소회의실, 카페, 체육시설

○ 동 과학단지에는 3개의 부지에 나뉘어 개발, 관리되고 있음.

- 1962년 조성된 Scion DTU a/s Science Park로, Hoersholm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용지규모는 186,000 m^2 정도 : 주로 R&D기업을 유치하여 실험실과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, 80개 기업에 3천명 정도를 고용한 바이오 클러스터임.
- 2004년 DTU대학 캠퍼스 내의 Lyngby지역에 25,000 m^2 규모로 조성 : 주로 인큐베이터 기업을 관리하며, 100개의 기업에 500명 정도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음.
- 코펜하겐 중심부에 Symbion과 공동으로 50%씩 지분투자해 의해 COBIS(Copenhagen Bio Science Park) 설립 : 2009년 문을 열었으며, 10,000 m^2 규모로 바이오기업이 많이 입지함.

<SCION DTU의 로고 및 산학협력>



○ 초기 창업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DTU Innovation과 SEED Capital을 설립함.

- DTU Innovation은 1억 7천만 달러 규모로 기업 창업 초기에 투입되는 공공자금이고, 그 외에도 innovationsmiljøer라는 초기투자를 하는 공공기금도 관리하고 있는데, 이를 통해 매년 초기단계의 기업에 연간 6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음.

- SEED Capital은 약 9천만 달러 규모로, 설립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투자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되는 민간투자자금임.

(3) 덴마크 Medicon Valley Alliance(MVA)

○ 1997년 설립된 Medicon Valley(MV)는 덴마크 동부(코펜하겐)와 스웨덴 남서부(말뫼)에 걸친 생명과학 활동의 허브임.

- 덴마크 동부와 스웨덴 남서부는 10분내로 연결되는 다리를 갖고 있어 긴밀한 네트워크가 가능함.

- 이를 관리하는 MVA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이 지역 클러스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기관임.

○ MVA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.

- MVA는 MV의 성장, 경쟁력 제고, 고용증진을 촉진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음.

- MVA는 노동력 유치, 투자 유치 및 파트너 탐색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함.

- 예컨대 덴마크 소재 Novo Nordisk A/S 등은 생명과학 관련 지식뿐 아니라, 누구에게 투자해 어떻게 회수할지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, Lundbeck Ventures 등은 신경과학에 초점을 맞춘 벤처기업임.
- MVA멤버는 약 250개 기관이며, 그 중 생명과학 관련 기업이 80%이고, 나머지는 CRO, CMO, 공공기관, 대학, 과학단지, 투자자,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자 등임.

<MVA의 전경>



□ Medicon Valley Beacon Initiativ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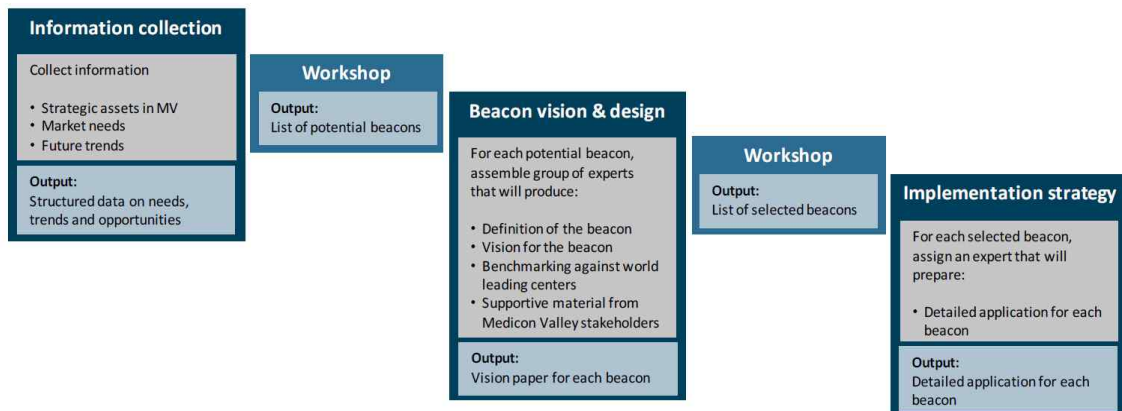
- MV가 글로벌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전문가를 유치, 보유하는 일임.
 -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연구 및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, 이를 위해 지역에서는 인프라와 연구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음.
 - 예를 들면 Lund에 있는 Medicon Village 연구시설, 코펜하겐에 단

백질 연구를 위한 Novo Nordic Center 등이 설립되어 많은 지원을 받았음.

- Beacon(심벌, 간판, 등대) 프로그램은 선택된 역량이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통된 전략을 수행하여 글로벌 기업, 과학자, 자본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우수한 연구센터 내지는 투자대상 지역을 엄선하여 육성시키는 것임.

- MVA의 역할은 생명과학분야의 Beacon이 창출되도록 하고, 선택된 Beacon에 대해 자세한 비전과 경영전략과 세부 실행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것임.

<Beacon 진행 과정>



자료 : MVA

□ MVA Ambassador

- 또다른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시작된 각국별로 MVA Ambassador(생명과학분야의 비공식 대사)를 임명하는 프로그램임.

- Ambassador는 덴마크와 스웨덴 출신 생명과학의 전문가로 외국 현지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 MVA기업들에게 각종 현지의 정보를 덴마크 기업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음.

- 이들의 역할은 현지 기술 및 파트너 탐색, 라이선싱, 시장분석, MVA로의 연구원 및 기업 유치, 현지의 산업동향 제공, 판매지원 등 다양함.
- 현재는 일본, 한국, 캐나다 컬럼비아, 미국 보스턴 등에 Ambassador를 두고 있으며, 이를 통해 MVA의 생명과학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.
- 스웨덴 기업인 Exini Diagnostics는 초창기 소기업으로 출발해 일본의 Ambassador를 활용해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임.

2. 스웨덴 Science Park

(1) 스웨덴 Lindholmen Science Park AB

- 예테보리(Göteborg, Gothenburg)는 스웨덴 남서부 베스트라 예따란드(Västra Götaland) 지방의 최대 시이며,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이 지역은 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수많은 조선공장이 폐쇄되고, 하이테크산업이 발달하고 있음.
- 예테보리지역의 하이테크산업은 스웨덴 내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진 의약을 포함한 BT를 중심으로, IT, 자동차 등을 포괄하고 있음.
- 그 중 볼보(Volvo), 사브(Saab)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의 자동차기업이 예테보리를 중심으로 한 스웨덴 서부에 집적되어 있으며, 주요 부품의 IT와의 접목을 추진하고 있음.
- 이 밖에도 SKF, 에릭슨(Ericsson) 등 세계적인 회사가 지사 혹은 공장을 두고 있는 등, 예테보리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웨덴 유수의 기업을 보유한 산업집적지로 주목받고 있음.

○ 예테보리지역에서는 최근 의생명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며, 동 산업과 관련된 대학, 네트워크를 포함한 지원기관, 과학단지 등이 지역혁신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.

- 예테보리지역의 의생명산업은 대학 및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, 북유럽 최대병원인 솔그렌스카(Sahlgrenska) 대학병원이 동 산업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, 예테보리 대학교 내에 Sahlgrenska Science Park가 설립되어 있음.

<Sahlgrenska Science Park 전경>



- 지역 내 주요 관련 기업으로는 AstraZeneca, Astra Tech, Nobel Biocare, Carlsson연구소 등이 있음.

○ Lindholmen Science Park AB는 동 사이언스파크를 신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0년에 민간기업으로 설립되었음.

- Lindholmen Science Park에는 330개 기업에 1만여명, Chalmers공

대 및 IT대학교 등 대학생 및 교직원 8,200명이 있음.

- 사이언스파크의 전체 용지면적 : 67만 m^2 (약 20만평), 건평 30만 m^2 (약 9.1만평)

○ 동 사는 총 14명이 근무하며, 연간 6,700만 달러(727억원) 정도의 예산을 집행함.

- 전체 예산의 50~70%는 공공기관으로부터, 25%~50%는 대기업 등 민간으로부터, 나머지 10~15%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한 수입임.

- 동 사는 Chalmers공대, 예테보리 시청, 볼보그룹, 볼보자동차, 에릭슨, 사브자동차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.

○ 동 사는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 초점을 두고 산학연간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음.

- 인공지능 자동차 및 교통시스템

- 핸드폰 관련 데이터 통신

- media(TV, social network, movie) 및 디자인

<Lindholmen Science Park의 전경>



○ 동 사는 이런 분야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주요 제품의 테스트, 개발 등 상기 3개 분야 관련 7개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을 통해 수행함.

- Test Site Sweden : 겨울철 안전을 위한 운전 시뮬레이션, 교통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프로젝트 수행
- Security Arena : 국가프로그램으로, 사회 전체의 안전, 특히 위험한 물질의 안전 수송, 외부의 항만 파괴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정보통신 기술개발
- Safety Arena/SAFER : 충돌 전, 충돌시, 충돌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, 연간 예산의 절반 투입
- Visual Arena : 스크린 기술, 3D, Media, Design 관련 기술
- TUCAP : 앰블런스 및 긴급구조(112)센터 수송기술 개발
- CLOSER : 트럭, 선박 등 수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수행
- CISB Sweden : 상파울로 과학단지 설립 자문 등 브라질과의 협력

○ 동 사는 직접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대기업 등과의 R&D협력 및 시제품 테스트 등에 중점을 둠.

- 스웨덴에서는 창업실패시 범죄가 아닌한 문제삼지 않음.
-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은 다음과 같은 다른 기업 들임.

<예테보리지역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>



- Lindholmen Science Park AB의 성공요인은 조직내 갈등이 없고, 회원내 대기업과 동 사의 업무가 경쟁적이기 보다 협력적인데 기업 함.
- 그 외에도 동 사는 산업계의 이해에 적극 부응하고 있고, 국가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으며, 업무에 대한 융통성 있는 처리 및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경영하는데 기인함.

(2) 스웨덴 Kista Science City AB

- 스톡홀름에 위치한 시스타 사이언스시티(Kista Science City)는 스웨덴 정보통신산업(ICT)의 메카로, 세계 5대 ICT 클러스터 중 하나임.
 - 총 면적은 200만m²(66만坪)이며, 사무실 면적은 110만m²이고, 30만m² 확장 작업이 진행 중
- 1976년부터 Ericsson, IBM 등 대기업을 주축으로 시스타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여, 현재는 스톡홀름 주변의 26개 시까지 포함되어 Stockholm Business Alliance라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.
 - 스톡홀름과 그 주변 4개 시가 핵심으로, 시스타지역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 중임.
- 시스타와 그 주변지역의 관리·운영 및 네트워크 지원기관으로 설립되었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(Kista Science Park AB)가 2000년부터 Kista Science City AB(7명 근무)로 바뀜.
- 주요 업종은 Wireless Communication과 무선 인터넷이며, 이 때문에 시스타 및 그 주변지역은 'Wireless Valley' 혹은 'Mobile Valley'로 불리고 있음.
 - 시스타 및 그 주변지역에는 2012년말 현재 8,600개의 기업(ICT기업 1천개 포함)이 있고, 종사자수는 총 7만 800명(ICT 종사자 24,500명 포함)이며, 거주자는 125,000명임.
 - 시스타 핵심지역(central business district)에는 1,500개 기업(ICT 400개 포함), 32,500명 종사자(ICT 18,500명 포함), 1천명의 과학자, 6,800명의 대학생, 10개의 기업 네트워크 조직, 45,000명의 주민이 있음.

- 시스타 핵심지역에서는 연간 10여개의 기업이 창업되고 15개 이상의 기업이 유치되어 연간 총 30개의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.

<KISTA Science City 전경>



- Kista Science City의 발전을 총 지휘하는 이사회 역할을 하는 기관은 1999년 만들어진 일렉트럼재단(The Electrum Foundation)임.
 - 동 재단은 스톡홀름 시장, Ericsson과 IBM의 CEO, 스웨덴 왕립공대(KTH) 총장 등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됨.
 - 이 재단에서 앞서 언급한 시스타 관리기관으로서의 Kista Science City AB이나 기업지원기관으로서의 Stockholm Innovation & Growth(약칭 STING) 등 계열 자회사를 갖고 있음.
- 동 재단은 Kista Science City 발전을 위해 6개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.

- 고등교육 및 기업가정신위원회, 혁신 및 글로벌 성장위원회, 인프라위원회, 마케팅 및 신기업유치위원회, 연구 및 산업위원회, 도시생활위원회 등
- Stockholm Innovation & Growth(STING)은 시스타의 기업지원기관으로서, 창업, 기업연구실, 인큐베이터, 금융 및 글로벌 성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.
 -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 준비생을 위해 4시간씩 10~12회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
 - 프로젝트나 기업을 위한 사전 인큐베이터로 6개월간 Business Lab 이 제공되며
 - 본격적인 인큐베이터로 12~18개월간 Business Accelerator가 제공됨.
 - 또한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5시간씩 10~12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
 -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공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STING Capital 이라는 벤처캐피털을 운영하고 있음.

(3) 스웨덴 Stockholm Science City Foundation

- Stockholm Science City Foundation은 스톡홀름의 생명과학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음.
 - 동 재단은 Karolinska의대, 스웨덴 왕립공대(KTH), 스톡홀름대학교, 스톡홀름 시청 등에 의해 1992년 설립되었고, 인원은 10명임.

- Uppsala를 포함한 스톡홀름 주변지역은 830개의 생명과학 관련 기업에 4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어, 스웨덴 전체 생명과학산업의 60%를 차지하고 있음.

<Stockholm Science City 전경>



- 스톡홀름은 Karolinska대학병원과 의대를 중심으로, Karolinska Science Park 등 생명과학 관련 클러스터가 잘 조성되어 산업발전 여건이 우수함.
- Karolinska Science Park에는 60여개의 생명과학 기업이 입지해 있으며, 이러한 생명과학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, 관련 지역이 두 배로 확장되고 있음.
- 스톡홀름이 강점이 있는 생명과학분야로는 분자생물학, 종양학, 신경과학, 면역학, 재활의학 등임.
 - 분자생물학은 스톡홀름대학교가 중심인데, 이 대학의 논문은 세계 평균보다 70% 이상 더 많이 인용됨.
 - 종양학은 카롤린스카의대가 주도하며, 유럽 최고 수준의 대학교임.
 - 신경과학은 스톡홀름 뇌연구소(Stockholm Brain Institute)와 스웨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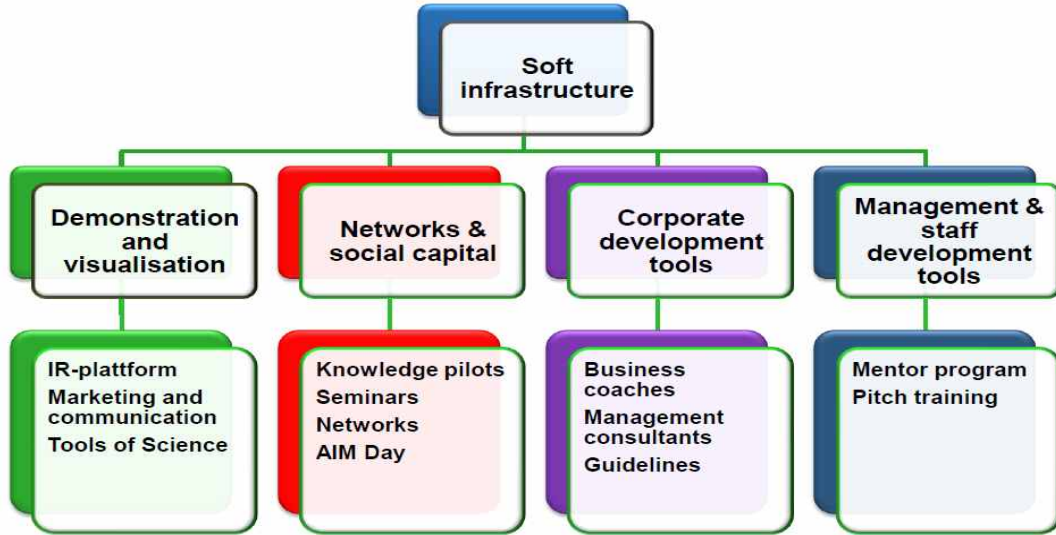
뇌연구프로그램인 Swedish Brain Power 등이 주축임.

<Karolinska Institutet Science Park의 전경>



- 이와 관련해 스톡홀름에는 특히 관련 산학연이 다수 입지해 있음.
 - 60개의 핵심 시설과 180개의 기업지원 서비스 기업, 국립분자생물학연구소(SciLife Lab), 바이오 은행으로서의 BBMRI.se 등이 있으며, 생명과학 전문가도 5,300여명에 달함.
 - 기업지원 서비스 기업에는 연구 및 특허와 관련된 2개의 대기업이 있음.
 - 특히 IT와 BT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국제 컨퍼런스 개최시 Kista와 협력하고 있음.
 - 그 외에도 마케팅, 컨설팅, 교육훈련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기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음.

<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수단>



자료 : Stockholm Science City Foundation

3. 시사점

- science park의 성공요인은 각 science park의 특성이 반영되어 약간씩 달랐으나, 경북사이언스파크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주요한 요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.
- **대학과의 밀착 협력** : science park가 대부분 대학내 혹은 주변에 입지하여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, 경북TP 벤처동이 입주할 예정지를 중심으로 주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.
 - Scion DTU a/s Science Park의 경우는 덴마크공대(Danish Technical University)가 100%지분을 갖고 대학캠퍼스 내에 입지해 있으며, 주로 R&D기업을 유치하여 실험실과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음.
 - 따라서 경북TP 벤처동의 경우도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 외에도 타

것 유치대상기업을 단순 창업기업으로 할 것인지, R&D 중심 기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필요함.

○ **science park의 지리적 분할 및 역할분담** : 현재 경북TP가 입지한 위치가 영남대학교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를 갖고 있어, 새로이 조성할 벤처동과의 지리적 분리 및 역할분담 방안 마련도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보임.

- 3개의 단지로 운영되고 있는 Scion DTU의 경우 Hoersholm지역의 science park는 R&D기업 위주로, Lyngby지역은 종업원 5명 내외의 소기업 위주로, 코펜하겐 중심부에 위치한 COBIS는 Bio에 특화되어 상호 역할분담을 하고 있음.

○ **물리적 공간 외에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 지원** : 경북TP 벤처동은 기업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지만,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.

- 덴마크의 MVA는 Beacon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, 경북TP의 경우에도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.

- 즉, 벤처동에 입주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, 자세한 비전과 경영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투입하여 지원하도록 함.

- MVA의 Ambassador도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인데, 경북 벤처동에 입주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 및 파트너 탐색, 라이선싱, 시장분석, 산업동향 제공, 판매지원 등 심도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.

-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신생기업 지원 : 벤처동에 입주한 소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내지는 상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로, 경북TP가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Lindholmen Science Park AB는 직접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대기업 등과의 R&D협력 및 시제품 테스트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.
 - 경북TP는 벤처동에 입주한 기술력있는 기업이 경북소재 유관 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마련해 대-중 소기업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

-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 서비스제공 기업의 육성 : 경북TP에 벤처동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경북TP의 인력만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가능 기업군의 선별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도 강구되어야 함.
 - Lindholmen Science Park 주변에는 Chalmers Innovation, valea, ALMI 등 창업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있음.
 - 경북TP도 벤처동 주변에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기업의 유치 및 이들과 입주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함.

-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: 경북TP 벤처동은 사업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창업 준비생에서부터 창업 3년 미만으로 사무실만 필요한 기업, 창업후 3년 이상의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기업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.
 - 스웨덴 시스타의 기업지원기관인 Stockholm Innovation &

Growth(STING)의 사례를 원용하여 공간뿐 아니라, 공간규모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요함.

- 예컨대,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 준비생을 위한 교육, 프로젝트나 기업을 위한 사전 인큐베이터 제공,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.

○ **주변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** : 경북TP 벤처동 입주기업의 주요 업종을 구분하여 활용가능한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입주기업이 다양한 채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.

- Stockholm Science City Foundation는 주변에 다수 입지한 전문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, 기업경영코우치, 경영컨설턴트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음.

○ **적극적인 자금지원** : 경북TP가 벤처동을 건립하는 경우 단순한 창업보육기능 정도로는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,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함.

- Symbion은 SEED Capital Denmark 등 벤처자금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원활화 및 지분투자 등을 제공하는 한편, 별도의 투자펀드(Accelerace Investment Fund)를 갖고 직접 자금지원을 하고 있음.

- Scion DTU a/s Science Park도 초기 창업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DTU Innovation과, 어느 정도 발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SEED Capital을 갖고 있음.